

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과 대화하는 박능후 장관

등록 2020.08.28 14:04:38



[세종=뉴스시스]강종민 기자 =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(보건복지부 장관)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대화하고 있다.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,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된다. 또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관리, 시설 내 테이블 간 2m(최소 1m)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 2020.08.28.

ppkjm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